

학원 수학강사에서 소설가로, “청소년 문제는 한·일 두 나라 공통의 숙제”



학원 강사 출신에서 소설가로 변신, 큰 성공을 거두며 일본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작가 요시이 씨(38. 사진)가 국내 출판사와의 계약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한국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가 발표한 소설 《아유 이야기》는 현재 일본에서 3개월 만에 30만 부가 팔려 요시이 열풍을 몰고 왔다. 메이저 출판사에서 낸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 작가가 쓴 작품도 아닌 소설이 30만 부 이상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그의 작품 《아유 이야기》는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인 ‘아유’는 원조교제를 하면서 돈과 쾌락의 늪에 빠져든다. 그러던 중 도쿄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어떤 할머니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원조교제를 뉘우치게 된다.

그가 자신의 홈페이지(www.zavn.net)에 작품을 연재하기 시작하자 네티즌들이 보여준 반응은 작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고 한다. 그후 소리 소문 없이 입소문이 퍼져 조회 수 100만 건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인기를 끌었다. 책 출간은 이런 인기에 힘입은 것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느낌은. ● 이태원과 인사동을 둘러봤는데 일본보다 훨씬 활기차고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자신의 소설을 평가하면? ● 내 소설은 문학성보다는 대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전파력이 있는 소설이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잃고 어른들에 의존해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한번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중적이면서도

진지한 소설이다.

소설 구상과 취재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 나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도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들을 면담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후 나는 좀더 넓은 차원에서 원조교제 학생들의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신들을 도우려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경험을 소설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논픽션 형식으로 다룰 수 있는 이야기인데 소설 형식을 택한 이유는? ● 소설이라는 형식이 사람들에게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도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걸러내고 싶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픽션으로 쓸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기 작가가 됐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여기저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다. 인터뷰나 강의 등으로 바빠졌다. 지금도 다이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강연이나 인터뷰가 없는 날은 소설 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소설이 어떻게 읽히길 바라는가? ● 이 소설은 일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사회 현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자 쓴 작품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한국도 사이버 시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독자들이 그렇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작품은 종이나라에서 올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로도 번역돼 중국어권에서도 출간될 계획 이란다. **출판**

취재 김도연 기자